솔잎 끊기 공생애

(눅4:31~44)

31.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32.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34.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37.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솔잎 끊기 공생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하루가 온전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의 케이스가 다 다르지마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본질적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하루가 보여 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의미를 핵심내용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모든 사건의 공통된 의미가, 공생애 하루하루가 뭐였냐 하면 바로 오늘 사건에서 보이는데, 그게 솔잎 끊기였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3년의 하루하루, 365x3 대충 얼마가 나오나요? 천 단위 넘나요?
그 모든 하루는 솔잎 끊기 전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잎 끊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왜 이파리 가지고 놀이하잖아요.
예를 들어 아카시아 잎사귀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씩 들고 가위바위보 해서 달려있는 잎사귀 하나씩 떼어냅니다, 먼저 떼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솔잎은 바늘같이 생긴 두개의 잎이 밑둥을 보면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은 다 두 가닥씩 하나로 묶인 채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솔잎 끊기 놀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겹의 솔잎을 가지고 서로 엇갈려서 힘을 주어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은 반드시 끊어지게 돼있지요, 이게 솔잎 끊기 놀이에요.
또, 혹은 두 갈래 V 자로 돼있는 것을 이 V 자 사이로 걸어서 끊어내기도 합니다.
십자형으로 엇갈려서 서로 잡아당겨서 누가 끊어지는가, 누가 끊어지지 않는가.

이게 솔잎 끊기 놀이인데, 예수님의 공생애 하루가 바로 이 솔잎 끊기로 이루어졌었다 이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에 임하시던지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의미를 따져보면, 그게 솔잎 끊기였다는 것이에요.
줄과 줄이 서로 맞닿아서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 그리고 삼형제, 한~참 먹을 나이에 그 삼형제를 먹이시느라고 정말 가지가지 음식을 다 만드시는 중에, 그 음식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지니고 계셨던 음식 요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달걀 삶은 것을 이렇게 옴폭 파인 달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옴폭 파인 곳에다 놓고, 달려있는 윗부분을 확~ 잡아서 아래로 누르면, 그 윗부분이 꼭 하프같이 생겼어요. 줄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이 달걀을 아주 곱게, 가느다랗게 눕혀놓은 달걀을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조각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 조각으로 난 달걀 삶은 것의 조각들을 가지고 뭐 놓기도 하시고 요리를 하셨던 기억이나요.

실칼이죠, 실칼. 줄칼입니다.
이 줄칼이 이동해 갈 때, 움직일 때마다 엇갈려서 나있는 모든 줄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솔잎 끊기의 원리도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엇갈려서 끊어내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땅에 사는 인간이 유일무이하게 완벽할 정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십니다.
땅에서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갈릴리에 있으시든 나사렛에 있으시든 가버나움에 가시던 예루살렘에 가시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과 하늘 문이 열린 상태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움직이실 때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납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일을 만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땅에 계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기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무를 보는 직장인이셨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하늘과 연결이 되셨을 것이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사는 주부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밥 짓고 설거지하는 동안에도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연결의 줄이 움직이는 거였다는 겁니다.
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줄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 나타났던 그 하늘 문이 열린 상태가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하나님의 마음이) 그 연결된 수직의 칼 줄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나실 때마다 줄 끊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냐? 엇갈리기 때문에.
뭐가 엇갈리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수직방향으로 줄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간들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 땅 위에 있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일들을 향하여 마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평선상에서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애인을 향해 연결이 되어있거나 내 사업을 향해 연결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최후로 내 몸으로 연결이 되어있거나. 그 내 마음이 연결 되는 게 전부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내 몸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든 가족이든, 혹은 목사님들 같으면 목회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수직으로 연결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 줄이 수직으로 와서 나를 닿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것과의 연결의 줄도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잎 끊기에서처럼 끊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사업 잘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은 사업이라는 문제와 수평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수직으로 연결되어진 그 줄로 지금 사업과 수평으로 연결되어진 줄과 만나면서, 엇갈리면서 솔잎 끊기 전쟁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하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상태를 주시하시면서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면, 바로 이 끊어지기, 끊어지기가 경험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으로 연결된 예수님 마음의 줄이, 수평으로 연결된 내 마음의 줄을 끊어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 받을 때, 아예 잘못 소개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을 강화 시켜주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일들,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된 겁니다.

오늘 공생애 하루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베드로 장모님 집에 소문을 듣고 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귀신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이게 다~ 지금 솔잎 끊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절조차도,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 땅 위에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내 마음이 좋아하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좋아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강화 시켜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귀신이나 옛날식으로 말하면 액이 나가도록 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 고치신다는 것도 내가 몸을 사랑하고 있는데,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이 몸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강화 시켜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수평으로 연결된 것들, 내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갖고 싶어 하고 소원하면서 수평으로 연결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병에 걸린 것처럼 열심을 내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르잖아요?
그건 마귀가 담아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열병 걸린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마음이 연결돼서 좋아하는 것들과의 연결의 줄을 끊어내고, 내 마음을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수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뭐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가 마음으로 수평으로 연결되어서 좋아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와서 부딪치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자체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수직으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하시면서 이 수평을 향한 이 세상의 모든 말씀들이, '이 세상에서의 돈 벌어 성공하자, 자식 잘 키워 성공하자, 건강관리에 성공하자'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게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도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유일한 존재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분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의 것이 내 마음에 연결이 되면 내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는 일,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등졌기 때문에 허기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때에, 돈을 먹음직하게 보이도록 만든 게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명예, 권력, 내가 대통령 돼야지, 이런 이 세상에서의 꿈을 갖게 만드는 것, 대통령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재벌 되고 사장 되는 것, 내가 학 박사 되는 것, 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 세상에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먹고 싶어 하도록, 군침 흐르게 만드는 일을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허기진 배인데, 하나님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 대신에, 이 세상에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견물생심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이 더러운 귀신들이라 이거에요.
귀신은 다 더러워요, 깨끗한 귀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름 한 것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일등공신들이라 이겁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될 마음에, 하나님으로 배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쁠 수 있고 온전히, 완전히 올바르게 진리에 입각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자꾸 다른 것을 먹으라고 우리들을 꾀는 것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느끼면 귀신들린 겁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행복해 질 것 같다, 하나님 말고 내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이게 지금 귀신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이거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라 이겁니다.
어떨 때?
수평으로 연결된 것을 예수이름으로 고집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수평으로 연결된 것들을 이루게 해 달라고 고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열병 걸린 것처럼 열 내면서 난리를 칠 때에, 이때 귀신이 담아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신천지에 대해서 읽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그거더라고요.
천국의 설계도가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설계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신천지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육의 영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육의 영생.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범벅을 하고 처바르든지 간에 신천지의 핵심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이단 중에 왕 이단이에요.
그야말로 마귀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사탄의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성 종교 강단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수직으로 연결되신 분으로서 공생애를 하신 것에 엇갈려서 부딪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수평으로 연결된 교인들의 마음을 강화 시켜 가면서, 이 수평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병을 앓게 만드는 모든 강단이 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강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다, 감리교다, 순복음교회다, 이 모~든 기성교단 내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된 강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뭐 하는 것입니까?
꼭~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율법에 어긋나는 것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법을 따라서 정법대로 돈을 온전히 벌고 세금 또박또박 내는 사업가도,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창녀만큼이나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규정한 윤리대로 법대로 했더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기 위하여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법을 따라 윤리를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수평적인 것들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면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질병을 고치신 것도,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연결 되어서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몰입되어 버립니다.
몸을 잊어버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플 때는.
온~ 마음의 신경이 몸에 다 집중되어 버리고 맙니다.
제가 신석통을 앓을 때, 아내가 뭐라고 해도 자식이 뭐라고 해도 들리질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설교하고 준비하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온~신경이 이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요로, 여기에 박힌 돌 때문에 생기는 고통에 다 집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근본적이 이유가 뭡니까?
수평으로 연결된 줄을 수직으로 연결된 주님이 임하시면서 다 끊어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줄을 끊어내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서처럼 말뚝을 박아두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끊어내시기 위해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 몸을 향하여 수평으로 연결된 우리 마음을 강화 시켜주고 인증해 주고 맞다고 칭의 해주는 그런 의미로 공생애에서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신천지 따위나 통일교 문선명 이런 이단들은 걱정할 게 못돼요, 경계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기성교단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총회장 하는 이단, 노회장 하는 이단,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헌금생활 꼬박꼬박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잘살 수 있다.
아하! 이게 더러운 귀신에게 들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들린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하시면서 숫자적인 부흥과 큰 예배당 건축에 목을 매지요, 이거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예요.
하여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 마음이 연결 됐으면 다 더러운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수직으로 연결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땅에 대해 죽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처럼 이 땅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직으로 연결된 연결 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몸을 이용하셔서, 어떤 대역사를 이루더라도 내 마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내 마음이 연루돼서 그 일 때문에 기쁘고 그 일 때문에 행복해 진다 그러면 다시 나는 더러운 귀신에게 먹힌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하나님의 기적인데도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땅에 묶여 버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면서,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다시 따먹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솔잎 끊기에요, 솔잎 끊기.
수직으로 연결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선은 실칼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실칼을 만나면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에 내 몸과 연결된 것 조차도 끊어지고,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사업, 내 일, 모~든 수평으로 연결된,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도 수평에 연결된 줄들을 강화 시키려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입에 더러운 귀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잎 끊기.
예수님의 공생애였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수평의 줄이 끊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경의 말씀으로 칠갑을 하면서 핵심 마음을 보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모든 이단들과 이단적인 정통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을 주님,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직으로 연결된 주님의 실칼 앞에서 수평으로 연결된 우리의 더러운 연결 줄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정말 복음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